

# 서울대교수 개발 아까시나무 北간다

## 금강산 산림 복원 투입



북한에 심을 아카시아 나무 개발한 이경준 교수

서울대 교수가 개발한 아까시 나무가 북한의 산림복원 사업에 이용될 전망이다.

4일 서울대 산림과학부 이경준 교수에 따르면 1996년부터 10여년에 걸쳐 개발한 아까시 나무 4종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남북기술협력사업 차원에서 북한지역 산림 복원에 투입된다. 이 교수는 미국과 헝가리, 일본, 중국 등에서 도입한 아까시 나무 품종 수천 그루를 뿌리를 캐 땅에

파묻는 ‘근삽(根插)’ 방식으로 재배해 이 가운데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4가지 품종을 ‘선발육종’ 했다.

이 교수는 선발된 품종 5000여 뿌리를 지난 달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서울대 칠보학술림에 심었으며 이를 1년간 재배한 뒤 협력사업의 진행에 따라 금강산 일대에 심을 계획이다. 그는 뿌리혹박테리아를 지니고 있어 공기 중의 질소를 흡수해 단백질로 변환시키는 아까시 나무의 일반적 특성상 이들이 북한의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일반 아까시 나무보다 꽃이 2~3일 빨리 피는 ‘유니 아까시’와 2~3일 늦게 피는 ‘지니 아까시’, 꿀을 2배 정도 많이 생산하는 ‘다니 아까시’, 나무줄기가 곧게 자라는 ‘서니 아까시’ 등 그가 개발한 품종이 지닌 특성이 북한에 부수적인 경제효과를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은 이번에 재배 중인 5000 그루를 일단 북한에 이식한 뒤 성장 경과와 북한의 반응 등을 지켜보고 정부에 사업 연장을 요청하는 등 황폐화된 북한 산림 복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 교수는 “내년에 5000 그루를 금강산 일대에 심은 뒤 결과를 지켜보고 그에 따라 이후 지원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글 · 서울신문 이경원 기자  
사진 · 연합뉴스 이보람 기자